

## 學問領別域 評價와 大學教育의 質的 改革

池 應 業  
(亞洲大 材料工學科)

### 1. 大學教育의 課題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에 관하여 “첫째로, 人力開發體制가 비효율적이다……. 둘째로, 高等教育의 量的 擴大와 質的 水準의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겠다……. 셋째로, 급변하는 經濟·技術與件 아래 人력 개발의 주요 과제는 이에 대응할 새로운 人력의 양성과 기존 人력의 質的 水準向上에 있다.” 그리고 “經濟·社會·文化 등 각 분야에서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教育의 質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秀越性이 추구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 온 학교 教育의 平凡性을 지양하고 質의 高度化를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潛在力을 최대한으로 伸張할 수 있는 教育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또한 “현행 高等教育의 質的 未洽과 운영의 硬直性을 시정하고 다가올 高度産業社會를 先導할 高級人力을 배출하면서 國策化·민주화 社會의 多元주의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급변 高等教育 개혁은 秀越性과 自律性·效率性을 提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sup>3)</sup>

위의 引用文들은 수많은 다른 報告書에서도 類似的한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教育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改革에 의하여 教育의 質的 水準을 劃期的으로 向上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教育의 質的 改革이란 命題는 教育者 및 教育 행정가뿐만 아니고 학부모와 졸업생의 履傭者를 포함한 社會全體의 공통된 念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염원은 高度産業社會의 構築過程에서 우리의 過去·現在·未來의 座標를 精確하게 비추어 볼 때 當爲性 있는 自生的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教育의 質的 改革이라는 課題를 놓고 구체적인 解決方案을 모색하기 위한 接近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많은 方法이 논의되었고 부분적으로 실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主流를 이룬 만한 解決의 큰 실마리를 찾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異見을 露出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즉 質적 개혁의 成就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制度, 人的 構成, 教育課程, 方法, 財政, 社會與件 등에 있어서 우리의 傳統과 實情에 적합한 큰 흐름이 아

1) 韓國開發研究院,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總括報告書(1985).

2) 教育改革審議會, 1985年度 年次報告書, 審議結果, 改革의 基本原則中에서(1986).

3) 金信福,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教育改革審議會, 教育 개혁, 10월호(1986).

작까지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컨대 西歐와 日本의 大學처럼 講座制를 중심으로 한 교수와 학생, 小數 研究·學生集團에 의한 진지한 質的 追求라든가 또는 美國 大學과 같이 철저한 講義·試驗·課題物에 의한 敎育과 自由競爭的인 研究費 獲得에 의한 敎授組織의 自生的 統制 등과 같은 큰 흐름을 우리 大學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大學들이 아직 歷史가 짧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있어 質的 改革의 必須性을 깊이 인식하고 改革의 意志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 1) 大學敎育의 새로운 機能에 대한 認識 問題

우리 社會가 未來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大學敎育의 새로운 機能을 認識하고 創出하는 문제이다. “2000 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에 의하면 미래를 ‘高度産業社會 및 情報化社會’, ‘平準化와 多樣化가 병행하는 社會’ 및 ‘國際화된 社會’로 특징짓고 있다.<sup>4)</sup> 1950 년대 후반기부터 始發한 産業社會化 政策은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國家安保를 굳게 하고 나아가서 統一을 위한 經濟的 基盤을 구축하려는 必然的 努力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약 30 년에 걸친 桴의 結實로서 西歐에서 250 여 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工業文化를 받아들여 이제 21 세기를 내다보면서 高度産業社會와 情報社會라는 高度技術의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社會的 變化 즉 西歐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변화를 우리는 수십 년 사이에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천 년 동안 東洋文明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해 온 고유한 韓國文化의 傳統과 西歐的 工業文化의 模倣 사이에서 발생하는 葛藤을 어떻게 最低化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것으로 調和·創造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接近努力의 일환으로 표현된 것이 ‘平準化와 多樣化가 병행하는 社會’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大學의 機能을 敎育, 研究 및 奉仕의 세 가지로 보는 전통적 개념은 歐美大學들에 있어서 有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능은 그 내용 및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時代的·社會的인 發展水準과 周圍 與件에 따라서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한 大學의 機能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具顯方法이 논의의 核心이 되어야 한다. 歷史的 背景, 現在의 與件, 未來의 目標 또는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이들 기능이 각각 그 比重을 달리하면서 次元 높은 相互作用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韓國의 大學들은 社會의 한 構成員으로서 傳統文化 속에서 工業化에 隨伴하여 일어나고 있는 큰 變化에 대하여 과연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깊이 洞察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큰 變化를 體驗하면서 그리고 설정된 21 세기의 目標을 향하여 社會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기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大學의 機能을 設定하지 못한 채 混迷한 상태에서 彷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大學이라 하겠다.

#### 2) 專門性과 開放性에 입각한 自律性 問題

우리 社會가 2000 年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大學敎育의 專門性과 開放性에 입각한 自律性 擴大方向의 문제이다.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는 質的 向上을 위한 根本임을 전제로 하여 논의한다. “2000 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入試制度 定員制度 등 대학교육에 관련된 調一的인 制度를 단계적으로 自律化함으로써 대학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敎育改革審議會에서도 改革의 基本原則으로 自律性의 伸張을 주요 항목으로 추출

4) 韓國開發研究院, 前掲書.

5) 韓國開發研究院, 上掲書.

하여 “裁量과 責任이 수반되는 진정한 의미의 自律性이 伸張되어야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sup>6)</sup> 우리 사회는 開放社會로서 국제적으로 開放性을 더욱 擴大하면서 세계 가족의 一員으로 새로운 文化創造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30년간의 浬의 結實로서 이제는 高度産業社會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다. 大學教育協議會의 한 報告書에 의하면 “分析의 結果를 통하여 吟味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韓國經濟의 成長에 고등교육이 상당히 크게 寄與했다는 점이다……. 尖端科學技術의 진보가 국가간의 熾烈한 競爭 속에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보다 知識 및 技術集約의 産業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7)</sup> 지금의 발전 단계에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高等教育의 기여는 이제까지 주로 量的인 側面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적인 量的 膨脹에 필요한 高級人力을 양적으로 양성·공급하여 왔다고 보는 視角이다. 그러나 앞으로 20년간은 양적인 것보다는 質적인 기여를 社會는 필연적으로 요청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든지 目標 地點에 가까와질수록 成果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고 상대와의 경쟁이 더욱 深化되는 데 있는 것이다. 근간의 物質特許 實施, 市場開放의 壓力, 對日貿易 赤字의 增加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大學教育이 안고 있는 심각한 問題中の 하나는 社會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 기대되는데 大學教育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사회는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資質 높은 專門人을 요청하게 될 것이므로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도 따라서 같이 향상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히려 大學의 水準이 社會보다 한걸음 더 빠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大學의 현황은 오

히려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大學에 입학한 학생이 학업을 끝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專門人으로서 봉사하기까지에는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韓國學術院의 제14회 국제 학술 대회에서 徐明源은 “우리 教育은 해방 이후 40년 동안 刮目할 만한 量的 膨脹을 이룩했다. 그러나 質的으로 많은 弱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8)</sup>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段階에 따라 戰略이 바뀌기 마련이다. 어떤 일이 새롭게 생겨날 때 初期의 核生成段階에서는 保護育成方法이 가장 效率的인 戰略이라 할 수 있으나 일단 상당한 수준으로 成長한 中間段階에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케 하는 自助的 發展方法이 더 效果的인 戰略일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分業化가 일어나고 分業별로 專門性을 深化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發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教育의 自律性 伸張은 內質的 發展과 直結되어 있으며 成長期 教育의 專門性 深化와 責任性의 明確化를 뜻하는 것이다. 成長期에 도달한 상태에서 지나친 保護的 干涉은 오히려 발전을 阻害할 뿐 아니고 전문성을 萎縮하고 책임성을 抹殺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에 밝아 온 教育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教育行政에 대한 감독 관청의 엄한 統制는 그 責任의 일부가 大學自體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 學事行政上的의 여러 가지 亂脈狀態를 規制하기 위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要因들도 함께 작용하여 지금까지 惰性的으로 내려온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成長期 狀態로 발달하지 못한 大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오랜 大學歷史를 지닌 사회에서도 이런 대학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大學에 대해서는 엄한 規制를 적용하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감독 관청의 統制에 있어서 成人으로 成長한 大學에 대해서도 성장하

6) 教育改革審議會, 前報告書.

7) 金信福外, 國家發展에 대한 高等教育의 寄與,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3. 12.

8) 徐明源, “2000年代의 教育改革方向,” 韓國學術院, 제14회 國際學術大會.

지 못한 대학과 같은 規制로써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成長·發展하는 大學을 성장하지 못한 대학으로 끌어내리는 結果를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의 學問領域別의 많은 專攻學科들은 專門職業的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수하는 教科도 3분의 2 정도가 專攻科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學問領域이 醫學, 工學, 法學, 農學, 教育學, 神學, 藝體能, 水産 등 무엇이든간에 많은 분야에서 高級專門人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 사회에 進出하게 되면 각각 專門的인 업무에 종사하여 스스로 事료를 판단하고 意思決定을 하며 바르게 實踐할 줄 아는 自律的인 行動을 하게 된다. 따라서 領域別教育에 있어서 教育內容을 위시하여 教育方法, 學業評價, 指導 또는 學科行政 등 교육의 質에 직접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業務들에 대하여 가장 精通한 專門人은 해당 專門領域의 教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醫學이나 工學教育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의 教授가 가장 정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學問領域別로 自律的인 운영에 맡기고 한 大學(校)內의 領域間의 統合調整도 그 대학의 自律性에 맡기는 것이 가장 效率的인 發展戰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大學의 自律的인 運營의 結果는 제 3의 專門人團을 통한 評價에 의하여 分析될 수 있으며 그 責任의 所在도 분명해질 것이다.

### 3) 教育改革에 필요한 財政確保 問題

大學教育의 質的 改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財政의 確保 없이는 불가능하다. 全國的으로 教育大學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學部 學生數는 1984년 현재 총 870,170 명인데 이는 1980년도의 2.7 배에 해당하며 大學院 學生數는 총 62,862 명으로 1980년도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는 국민의 높은 向學熱과 대학의 財政的 窮乏性으로 인한 定員의 무작정 增加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大學教育의 質은 尙에 밀려서 低下되어 가는 傾

向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의 學生 對 教授比는 1982년의 31.6:1에서 1984년에는 38.0:1로 逆方向의 奇異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심한 教授의 不足現象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專任教員으로 採用되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운 실정이다.

過多學生으로 인한 專任教員의 不足은 강의 담당 시간의 過重을 초래할 뿐만 아니고 研究, 學生指導, 論文指導 등에 할애할 시간을 부족하게 한다. 또한 學事運營에 있어서 班 크기가 大單位化되는 傾向을 나타내게 하고 특히 實驗·實習 또는 문제 풀이 등과 같이 小單位의 班編成을 필요로 하는 과목 등에 많은 어려움을 낳게 한다. 특히 大學院과 같이 研究論文을 필수로 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충실한 研究指導를 할 수 없게 한다. 教員數의 부족은 教育의 質的 低下를 초래하게 된다는 극히 기본적인 문제를 正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財政의 窮乏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質的 教育에 관련된 財政問題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部門은 施設·設備이다. 대학의 시설·설비는 대학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物理的인 要件이다. 大學發展의 初期段階라 할 수 있는 教授·學習 위주의 시기에는 시설·설비에 필요한 財政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發展水準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필요한 재정은 그 規模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미래의 高度産業化 및 情報化社會에 대비한 包括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施設·設備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大學教育의 質的 改革은 한낱 空念佛에 지나지 않게 된다.

現行 '大學設置基準令'은 大學 또는 學科의 新設認可를 위한 요건이 最低基準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大學側 또는 豫算當局으로서의 財政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最低基準의 충족에만 급급하고 있는 傾向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시설·설비가 좋다는 대학도 西歐·美國·日本은 물론이고 中進

9) 池應業外, 大學教育設施의 適正基準에 관한 研究, 韓國大學教育協會, 1985. 4.

國의 大學들과 대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産業化가 높은 수준으로 進行되고 大學院教育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自然系 大學의 教育 및 研究用 設備은 더욱 精密高級化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최신 高級機器의 出現 사이클도 짧아지고 價格도 비싸짐으로 大學의 財政的 壓迫은 더욱 커지게 된다.

대학의 質的 轉換이 불가피한 現時點에서 부족한 敎員의 增員과 貧弱한 設備의 보완을 위해서 획기적인 財政確保策이 시급하다. 그러나 留意해야 할 점은 施設·設備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經濟事情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追求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 質的 改革의 實績, 成就力 量 및 與件 등을 감안한 中期的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全國의 모든 大學이 先進國의 有名大學과 필적하는 수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非現實的인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財政事情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이 秀越性 追求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質的 改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財政은 얼마나 되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기본 문제이다. 1984년의 우리나라 私立綜合大學의 財政狀況을 살펴보면 收入은 學生 1人當 1,272,000 원인데 이 중 학생의 納入金 依存率은 89%나 되는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支出에 있어서는 學生當 1,184,700 원이며 이것을 主要 支出項目別로 나누어 보면 人件費 54.5%, 운영비 9.4%, 學生 經費 24.3%, 施設費 11.8%이다.<sup>10)</sup> 이것을 美國의 私立大學인 하버드大學의 1979년도 學生 1人當의 教育費(\$19,087)와 비교해 보면 불과 1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버드大學의 收入을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學生納入金 29.4%, 기부금 35%, 政府支援金 26%, 기타 수입 9.2%로 나타나 있다.<sup>11)</sup> 이러한 비교 하나만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教育費는 너무나 貧弱한 편이며 질적 개혁을 이룩하기에는 크게 未

洽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與件과 未來의 目標을 감안하여 適正水準의 教育費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教育비는 教育의 質的 水準에 따라 큰 幅으로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고 專攻分野와 學位種類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긴다. 대학의 敎授 陣과 數, 敎科課程, 施設, 學生指導 方法 및 學生生活動 등이 教育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變數들이다. 즉 대학의 教育目標과 政策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費는 大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私立大學들은 登錄金이 一律적으로 묶여 있으며 收入源에 있어서도 登錄金 依存率이 89%라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教育의 質까지도 묶여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教育費의 適正水準을 결정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해당 대학에 맡기는 果斷性이 필요하며 2차적으로는 教育비가 教育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效率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分析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社會的 및 經濟的 與件을 감안할 때 登錄金의 策定을 大學의 自律에 맡긴다 하더라도 美國이나 日本의 私立大學 水準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을 보완하는 동시에 收入源의 構造를 건전하게 改善하기 위해서도 登錄金 依存率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즉 등록금 이외의 다른 收入源을 마련하는 일인데 學校財團의 轉入金, 寄附金 및 政府의 支援補助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財團轉入金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西歐·美國·日本과 같은 政府의 財政支援制度가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의 支援金은 一般寄附金を 誘導할 수 있는 牽引力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個人이나 政府의 財政事情 등 현재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全大學에 대하여 質的 改革에 필요한 재정 투자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

10) 郭泳宇外, 1984學年度 大學財政·經營 評價報告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 12.

11) 郭泳宇外, 上揭書.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모든 大學이 低質의 教育을 이 이상 더 지속하게 된다면 高級産業化社會의 構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潛在力이 있다고 판단되는 大學에 대해서는 質의 改革에 필요한 財政을 확보할 수 있도록 登錄金에 대한 自律策定の 길을 터 주고 政府의 支援補助도 早速한 시일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 2. 解決을 위한 接近方法

### 1) 領域別 評價의 概念

위에서 제기한 大學教育의 세 가지 根源의인 문제점들은 상당히 包括的인 성격의 것이며 우리 사회의 傳統的 價値觀, 당면한 여러 가지 社會的 與件 및 財政的 어려움 등 많은 制約條件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解決을 위한 接近方法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까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解決方案이 논의되고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解決의 실마리는 쉽게 풀려질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영키어 가는 느낌마저 든다. 解放後 지금까지 대학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의 각 분야를 現水準으로 올려 놓는 데에 상당한 寄與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간 수많은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輩出し시켰으며 研究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틀을 잡아 가고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就學機會의 擴大, 教育機會의 均等化, 教育資源의 擴大, 教育行政의 效率化, 教育效果의 改善, 經濟發展에의 寄與 등은 大學教育의 發展推移로 보는 측면이다.<sup>12)</sup> 그러나 大學教育의 발전을 自體의 制度 및 運營面에서 測定하기보다는 社會發展의 現在와 未來에 대처한 學問의 內質性 與否를 基準으로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의 刻苦 끝에 이제 우리 사회는 高度産業化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 社會가 大學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중전의 것들과는 전혀 相異한 것이

라 하겠다. 教育의 質的 向上은 물론이고 學術 研究에 있어서도 次元 높은 獨創性을 요구하고 있으며 産學協同의 화답을 바탕으로 한 産業에의 活用增進을 강조하고 있다.

高度産業化社會의 구축을 위해서는 科學·技術의 相對的 優位性에 바탕한 經濟力量뿐만 아니고 價値體系 및 道德倫理面에 있어서도 높게 洗鍊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高度産業化過程이 주로 西歐나 美國·日本의 模倣에만 의존하는 형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 固有의 傳統性과 調和시켜 나가도록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大學教育의 質的 改革을 어렵게 하는 理由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大學의 教育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형태의 業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하나는 大學校·大學·學科·講座의 운영 조직 속에서 한 機關으로서의 全體的인 統合性을 위한 行政的 業務이고, 다른 하나는 學生의 指導教育과 研究를 직접 수행하는 教育·研究의 業務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까지 大學教育의 改革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方案이 提示되기도 하고 실제 실천에 옮겨 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대학의 全體的인 制度 및 學事行政의 측면에서의 改革試圖였다고 볼 수 있다. 즉 入學制度, 敎科課程의 구성, 卒業學點, 副專攻, 入學定員, 卒業定員, 研究實績, 教育與件 등 대학(교) 전체의 教育行政의 問題들에 관한 일들에 關心이 集中되었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한 主體가 일반적으로 大學의 補職敎授中心의 教育 행정 담당자였으며 官主導의 劃一性이 농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혁에 의한 教育의 質的 向上은 궁극적으로 學科現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學生을 직접 지도하는 敎授들의 改革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한 自律的 參與 없이 그 成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教育行政中心의 官主導的方法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學科 敎授들의 理解와 合意를 얻을 수 있는 接近方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改革

12) 金信福外, 前掲書.

事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大學校의 全體的인 教育行政과 學科의 教育·研究를 같이 連繫시켜 발전시키는 方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학 전체의 統合을 위한 教育行政的 問題는 機關評價에서 그 適切性和 效率性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單科大學別 學科의 教育·研究에 관한 문제는 領域別 評價에서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評價를 서로 連繫하게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改革의 成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973년부터 실시한 實驗大學 評價는 순수한 機關評價의 性格으로 실시되었으며 領域別 評價를 並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바람은 크게 일어났으나 기대한 만큼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80년대에 와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는 機關評價와 領域別 評價를 並行 實施함으로써 評價事業에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대학이 自體評價의 개념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財政上의 어려움, 評價結果의 活用 微弱 또는 結果의 公開 問題 등 여러 가지 制限條件으로 아직까지 本格的으로 內實 있는 評價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評價의 機能 擴大

두 손 일하는 企劃·實施·評價의 반복적 순환 과정에 의하여 發展의 效率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傳統的으로 企劃과 實施는 소중하게 다루고 있으나 評價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忌避하는 경우가 많다.<sup>13)</sup> 그런데 評價는 事業의 내용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目標地點에 가까와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形態의 評價가 있는데 이들을 잘 가다듬고 制度的으로 적절하게 보완하면 質的 改革도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두 가지 形態의 評價는 그 첫째가 文敎部에서 실시하고 있는 大學 또는 學科 設置에 대한 認可라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평가보다는 評定이라는 表現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두번째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機關 및 領域別 評價이다. 그러나 文敎部의 設置 認可는 設置基準에 따라 엄격한 審議를 거치고 있기는 하나 施設·設備도 없고 學生도 없는 상태에서 書類上으로 評價하는 것이며 일단 인가된 다음에는 운영에 대한 行政上의 감독은 하고 있으나 教育 및 研究의 質的 內容에 대해서는 거의 干與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認可評定은 現行 機關 및 領域別 評價와는 전혀 아무런 連繫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1973년부터 실시한 實驗大學의 教育 運營 內容에 대한 評價는 우리나라로서는 評價事業의 첫 試圖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實驗大學 評價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순전히 대학의 全般的 教育運營에 대한 機關評價의 性格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1982년부터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실시하게 된 평가에 있어서는 종전의 機關評價에 領域別 評價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評價 發展上 획기적인 進一步를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機關評價에 대해서는 評價準據의 模型 제시, 評價節次의 改善 등에 많은 진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領域別 評價에 있어서는 評價委員의 組織, 委員의 資質, 節次의 改善, 大學의 受容態勢, 評價 經費 不足, 專門學會의 無參與, 社會의 認識 不足, 學科別 評價基準의 開發 등 여러 가지 整理 補完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評價의 機能, 즉 '評價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문제와 結果의 活用, 關係機關의 認識 및 社會의 理解와 協力 등에 대한 基本概念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定立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評價事業은 1984년에 공포된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協議會의 紹介書에 의하면 "會員大學(校)의 機關運營 및 學問領域別 프로그램에 대해 自體評價와 評價委員의 現地訪問評價를 실시함으로써 大學의 自律的인 學事改革 및 教育內

13) 池應業外, 1985學年度 工學系大學(院) 評價報告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6.9.

實을 촉진하고 각 大學과 有關機關에 대학 행정 및 교육 발전의 준거가 될 資料와 意見을 제공한다”<sup>14)</sup>로 評價의 目的을 밝히고 있다.

즉 現行 評價의 機能은 대학의 自體評價를 유도하고 有關기관에 參考資料를 제공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컨대 대학의 機能問題, 自律性問題, 財政問題 등의 難題를 해결하고 質적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接近方法으로 평가를 고려한다면 現행 평가의 두 가지 機能은 너무나 微弱한 것이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1984년 12월에 개최한 ‘大學評價의 發展方向 摸索을 위한 세미나’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지적된 바도 있다.<sup>15)</sup>

國際적으로 가장 오랜 傳統을 가진 美國의 대학 평가는 교육의 質의 水準이 基準 이상이나 이하냐를 判定한다는 기본 개념으로써 대학 전체와 학과를 獨立적으로 評定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適格’과 ‘不適格’으로 구분하여 사회에 公表하게 되어 있으며 入學, 轉入學, 졸업생의 屆滿, 專門職 資格試驗, 聯邦政府 및 州政府의 支援金 지급, 一般 寄附金 지급 등에 있어서 法的으로 規制하거나 또는 慣習的인 參考資料로 삼고 있다. 그리고 19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英國의 大學支援金委員會(U-GC)의 평가는 政府에서 각 대학에 지급하는 支援金を 定策하기 위하여 學事計劃은 물론이고 學科, 教授, 教育與件 등 모든 教育運營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이 美國이나 英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大學評價는 그 기능이 明白하며 상당히 강력한 意志力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며 그 결과가 사회에 公開되므로 教育改革의 效果는 더욱 큰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評價의 機能은 교육의 質적 개혁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微弱하다. 근본 취지에 있어서는 대학의 自體評價를 誘導하고 評價委員會는 제 3자적 입장에서 자체 평가를 分析하는 協助精神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動機賦與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뿐만 아니라 改革成果에 대한 應報를 刺戟하기에도 너무나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평가 기능을 制度的으로 補完·確立하는 일이 評價에 의한 改革을 성공시키는 제 1차적인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과 학과의 設置認可와 現行 評價를 連繫시키고 大學財政確保와도 連關시키는 새로운 制度的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나 학과의 설치는 認可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입학시켜 교육함에 있어서 그 內實性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教育의 內實性은 입학하는 學生뿐만 아니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一般社會에 대해서도 保障되어야 한다. 그리고 改革을 위한 財政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成果를 올리고 있는 大學에서 필요한 것이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大學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3) 專門性에 바탕한 領域別 評價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의 人口도 총 인구 1,000명당 30명에 달할 정도로 膨脹하였으며 모든 가정에서 어떤 종류의 학교이든 子女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大學教育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많은 질타의 소리는 오히려 발전을 阻害할 우려가 있다. 教育의 발전을 위해서는 專門性이 요구되는 것으로 憲法에서도 教育의 專門性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教育을 상식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非專門家에 의해서 발전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大學教育에 있어서는 學問의 專攻分野에 따라 基本單位를 형성하고 있으며 西歐 및 日本의 대학들은 한 학과내에서도 몇 개의 講座別로 教育運營單位를 조직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文科와 理科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高等學校의 教育과 大學校·大學·學科·講座로 나누

14) 19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개서.

15) 康宇哲, “現行 大學評價 制度的 問題點과 改善方向,” 大學評價의 發展方向 摸索을 위한 세미나,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 12. 8.



어져 있는 大學教育은 그 기본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大學校는 醫, 工, 農, 文, 理, 法, 水産, 教育, 神, 藥, 經營, 音樂, 美術, 體育 또는 기타 分野 등의 여러 單科大學으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단과 대학내에서도 수많은 專攻學科로 나누어서 實際教育은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學問研究에 있어서는 한 學科內에서도 몇 개의 講座로 나누어서 팀을 구성하여 研究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教育의 발전은 大學校·大學·學科·講座의 4개 단위를 連繫시켜서 논의되고 計劃·運轉되기 마련이다. 이 때 高度의 領域別 專門性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대학교육에 관한 여러 일들이 領域別 專門性에 바탕을 두지 않고 中等教育과 같은 테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문제가 있다. 물론 初等 및 中等教育에 있어서도 專門性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大學教育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大學校·大學·學科·講座로 이어지는 全體의 조직성, 학사 및 연구 관리 제도, 전반적 시설·설비, 全體 財政管理, 人事問題 등 한 機關으로서의 全體的 統合·調整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 教育과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는 現場인 學科 및 講座에 관한 운영 업무들은 高度의 學問的 專門性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工科大学의 機械工學科의 교과 과정 또는 연구에 관계된 內容, 方法 및 質의 水準에 관한 일들은 같은 공과대학의 電子工學科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專門性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高度化되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專門性의 高度化 그 自體가 大學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영역별 전문성의 발휘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學生數, 教育費, 研究費, 學生指導, 學點構成, 學科行政組織, 意思決定權 등 여러 가지 制約條件이 많기 때문이다.

大學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戰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基本單位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大學의 全分野를 同時에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겠으나 人的 構成, 財政確保 및 기타 여러 條件 등으로 실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의 어느 대학에서도 全分野를 一時에 최상 수준의 質로 발전시킨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새로이 출발하는 대학이나 質的 改革을 시도하려는 대학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발전의 초점을 어떤 몇 분야에 좁혀서 맞추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들 分野가 먼저 발전을 成就함으로써 다른 분야도 점차적으로 끌어 올려 주는 先導的 役割을 담당케 하는 것이 발전의 순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는 대학내에서 발전의 潛在能力이 있는 學科를 제1차적으로 발전의 기본 단위로 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大學校들은 學科의 意思決定權이라든가 行政組織, 執行權 또는 結果에 대한 責任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等閒視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대학교 발전의 기본 단위는 單科大學이 아니고 學科이기 때문에 교육과 학문의 質的 改革은 資源의 均等配分에 있지 않고 重點集中에서 始發되는 것이다.

專門性은 學科教育의 根本이기 때문에 領域別 評價에 있어서는 專門性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領域別 評價는 分野別 專門學會의 協助가 반드시 필요하다. 專門人 사이의 協助精神, 전문인으로서의 自負心과 責任感, 좋은 後進을 원하는 職業意識 등이 작용할 때 領域別 評價는 所期の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